

투자유치 유공자에 성과급 8,700만원

전남도, 공무원·민간인 등 74명 포상...순천시 유치팀 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와 공무원, 지역주민들의 기업유치활동이 크게 늘어 이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35개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무원 71명과 민간인 4명 등 모두 75명에게 8천 700만여원의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05년에는 51명에게 5천900만원이 지급됐으나 투자유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년 사이 성

과급 지급 대상자와 액수도 크게 늘었다. 이번 성과급 지급은 지난해 9월 박준영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보상과 경쟁을 통해 전남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투자유치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은 팀은 (주)레이크힐스 순천 CC를 유치한 순천시 투자유치팀 3명으로 모두 858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전체 36홀로 건설되는 레이크힐스 순천 CC가 내년 1월 완공되면 전남도에 취득세와 등록세로 5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골프장 건설로 상시 고용인력 400명이 일 자리를 얻었으며 완공 후 운영 인력 5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순천시는 매년 20여여원의 지방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또, 개인별로는 포스코 마그네슘 판매공장 등 3개 기업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순천시의 Y 팀장이 가장 많은 700만여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모두 355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판매공장이 착공됐고 2010년 가동이 예상되는 관련 산업체 100여개를

포함한 총 매출액은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순천시의 중소기업 전체 생산액이 1조 2천억원 선인 것에 비하면 판매공장 유치로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또 민간인 신분으로 판매공장 유치에 기여한 순천시 신소재 센터 P모 팀장도 이번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전남도는 투자금액만으로 산정하던 지급 기준을 고용인원, 분사 유치, 도내 생산품의 사용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시설

정치권, 국민 생각하는 '큰 정치' 못하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에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경제회담을 제안했다. 노무현 대통령

의 신년연설과 기자회견에 이어 제1야당의 대표가 국정에 대한 기본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여야간 대화가 실종된 상태에서 심각한 민생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려는 점에서 환영한다.

정치권에 대화의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지 오래됐고 야당은 대선에 비주요 과업경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서로 '네 탓'만 있을 뿐 상생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강재섭 대표의 발언도 진정성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

의한 여야 대표회담을 거부했다. 강 대표가 경제현안에 국한해 민생경제회담을 청와대에 역제했었지만 진정성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의문이다. 설사 회담이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을 고려하면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 대표의 표현대로 민생은 파란 직전이다. 국민들은 직장을 잃거나 취업난에서 헤어가지 못하는 등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먹고 살기에도 어려운 현실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마저 둔화된다고 하니 지방 서민들의 앞날은 캄캄하다.

정치권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이 유와 명분이 어디에 있든 국민을 의식한다면 청와대와 여야 대표가 만나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정치권은 대선의 해를 맞아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훈훈한 감동 준 문근영의 아름다운 기부

'국민 여동생' 영화배우 문근영이 불황 등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국민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문근영과 그녀의 어머니는 해남군 송지면 '땅끝 공부방'이 집주인의 건물매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광주일보 2006년 10월 19일자)를 보고 3억여 원을 들여 현대식 시설을 갖춘 '지역아동센터' 건립과 통학 차량을 마련해 줬다는 것이다. '땅끝 공부방'은 배요섭 선교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로 결손 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농촌 마을 어린이 40여 명의 생활 공간이다.

문근영은 이전에도 광고 출연료 전액을 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 '기부천사'라 불리고 있다. 문근영은 이번에도 광고 출연료 전액을 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 '기부천사'라 불리고 있다. 문근영은 이번에도 광고 출연료 전액을 복지관에 기부하는 등 아름다운 선행을 이어가 '기부천사'라 불리고 있다.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이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이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불우 이웃들이다. 기부문화는 미국의 전체 기부액 가운데 개인 비중이 84%, 일본은 89%나 된다. 우리는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부는 가진 자의 과시나 소외계층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닌 이웃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담긴 나눔의 마음이다. 이번 문근영의 아름다운 선행이 '나눔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근영 모녀와 배요섭 선교사 부부처럼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있다.

“盧대통령-여당 운명 같이하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신년연설

개헌 포기·관리내각 요구...민생경제회담 제안

강 대표는 대선 중립성 확보 방안과 관련,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치놀음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대선의 공정한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즉각 내각에서 물러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관리내각’, 민생내각을 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 대표는 개헌 논란에 언급, “개헌 문제는 억지와 오기로 통할 일이 아니며 차기 정권에서 국회가 주도해 국민의 뜻을 모은 뒤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여당이 총선도 이겨

일당독재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총선이 대선의) 중간쯤에 오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란에 대해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는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남북정상회담의 문을 열어 놓지 말고 아예 닫으라”고 요구했다.

민생경제 해법에 대해 강 대표는 “민생위기 성사되면 자기주장만 하는 정치공세용 회담이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협상도 하고 토론도 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 포함 민생회담 수락”

盧대통령, 강대표 제안에 답변

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자신에게 민생경제회담을 갖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개헌문제를 포함해 국정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강 대표의 회담 제안과 관련해 “강 대표가 제안한 민생문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 및 개혁 법안, 개헌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핵심타협의 대화와 협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자기주장만 하는 정치공세용 회담이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협상도 하고 토론도 하는 회담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엔, 대북사업계획 재검토

3개월간 현지 실사키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문제가 제기된 대북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할 뒤 다시 승인 절차를 밟기로 25일(현지시간) 결정했다.

UNDP는 1천791만달러에 이르는 2007~2009년 대북사업 규모는 유지한 채 사업내용만을 조정할 새로운 사업계획을 3개월 내에 만들어 다시 승인절차를 밟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질 대북사업계획은 지속가능한 인적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되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결과도 반영될 것이라고 UNDP는 밝혔다. /유엔본부=연합뉴스



대주건설 '피오레 하우스 갤러리' 개관

들이 대주건설 직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대주건설은 26일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피오레 하우스 갤러리' 개관식을 갖고 종업5차 '피오레'아파트(277세대)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현장을 찾은 시민

박준영 전남지사 출국

여수박람회 유치 홍보



박준영 전남지사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위해 27일 출국한다. 박 지사는 오는 2월 5일까지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 루시아 등 4개국을 방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여수 유치 지지를 요청한다.

/박치경기자 unipark@

10~20년 복무 전역자 6개월간 月 50만원 지원

정부 '제대군인지원위원회'

군 복무기간이 20년 미만인 제대(전역)군인에게 내년부터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자치경찰과 산림방재단, 지역안보자문단을 설치할 때 제대군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6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제대군인 지원계획을 확정했으며 제대군인 문제의 주부처인 국가보훈처의 박유철 처장이 이를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제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전역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뒤 전역한 사람들은 군인연금에는 물론 고용보험법에 의한 구직급여(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어 자칫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것인 우려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박유철 처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작년 IMF 후 첫 적자

영업손실 1,253억 기록

기아자동차가 지난해 환율 하락과 내수 위축의 영향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천253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26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기업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총 17조 4천399억원(9%)의 매출을 올린 가운데 영업손실 1천253억원(지난해 740억 흑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상이외과 단기순이익은 각각 732억원(-89.4%)과 393억원(-94.2%)으로 나타났다.

기아차는 또 지난해 내수 26만9천 575대, 수출 87만1천159대 등 총 114만

대를 판매하면서 지난 2005년보다 3.2% 증가했다. 영업손실을 판매대수를 나누면 대당 10만9천842원의 손실을 본 셈이다.

이처럼 기아차의 실적이 떨어진 것은 환율하락으로 재산상이 악화된 데다 국내 RV시장 위축에 따른 판매둔화 등의 악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기아차 김득주 재무관리실장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이 각각 6.7%, 5.5% 하락하는 등 환율 변동으로 인해 매출액 8천110억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했고 매출액 대비 관측비 비율이 2005년 2.4%에서 4.0%로 높아진 점이 실적 부진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

“차기 6자회담서 초기이행조치 문서화”

한·중 외교장관 합의

여수박람회 지지 요청

조만간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문서로 만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25일 오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회담을 열고 차기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조치를 문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현지 외교소식통이 밝혔다.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문서화하는 것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새로운 국면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핵 사태의 실제적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이어 한국의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국측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리 부장은 지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연합뉴스

| | | | |
|--|------------------|------------------------|---------------------|
| 光 叻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許宰浩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 논설실장 金東永 | 편집국장 申港樂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 | | |
| 편집국내선 | 사회 2부 2200-619 | 총무부 2200-511 | 문화사업국 2200-541 |
| (대표)FAX 222-4918 | (F A X 222-8005) | (F A X 222-0118) |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29 | 문화생활부 2200-626 | 광고국 2200-521 | 판매부 2200-551 |
| 정치부 2200-616 | 여론매체부 2200-628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경제부 2200-617 | 체육팀 2200-627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사회1부 2200-618 | 사진부 2200-690 | 사업2부 2200-552 | (F A X 02-773-9335) |
| (F A X 222-4267) | 조사부 2200-570 |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연설인지...對국민 강의인지...

與 신당과 “그래도 나간다” “관망” 뒤송송

盧대통령 ‘탈당카드’에 ‘기획 탈당론’ 대두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사 발표 이후 열린우리당 통합신당과 내부의 기류가 뒤송송하다. “그래도 탈당한다”는 선도탈당파의 강경 기류와 “일단 분위기를 보자”는 온건그룹의 관망 기류가 뒤섞이면서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돈 국면이다.

중도파와 사수파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질서있는 통합신당’ 추진에 힘을 실어주면서 신당파내 온건그룹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평련(민주평화연대) 소속 정봉주 의원은 “탈당하더라도 힘을 못받는다”며 “나가려는 분들은 탈당을 감행하겠지만 매표하지 않아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도탈당파를 중심으로 한 신당과 강경 그룹은 오히려 ‘결행’을 재촉하려는 움직임이다. “대통령이 혼드는 데는 천재적인 솜씨가 있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박상돈)”, “질이 싫으면 종이 빨리 떠나야지...(정성호)”라며 예정대로 밀어붙이려는 기세다.

다음 탈당자는 영동연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 의원은 28일 탈당을 결행할 예정이고 천 의원은 29일 중앙위 이후 탈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들이 개별행동을 하는 ‘각개약진’ 식이 아니라 20~30명이 무리지어 나가는 ‘기획탈당’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